

개인 기여내용

맡은 일은 서버 구축 및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이었다. 서버 구축을 담당 했어서 개발 초기에 AWS 계정 생성 및 개발에 필요한 RDS instance, EC2, 등을 만들고 사용법을 따로 공부해 팀원들에게 알려주었다. 처음에 AWS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Framework를 작성할 지에 대해 난감하였었는데 인터넷의 여러 소스들과 개발 방향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 framework를 짤 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였다. 중간에 의도하지 않은 만큼의 AWS 요금이 과금이 되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해결한 후에도 계속 요금에 신경을 쓰며 어떻게 하면 과금이 되는지에 대해 더욱 고민 하고 틈틈이 과금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그 후 실질적으로 작업에 들어갈 때 API Gateway에서 end point까지 AWS에서 나온 대로 Cocoa pod을 사용해서 연결을 했는데 이미 만들어진 API를 사용해서 연결을 시도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API gateway에서 받아 오는것이 http method를 통해서 받아 오는 것이니까 url을 통해서 받자는 아이디어를 통해 url을 통해 연결하도록 하였다. 원래는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떻게든 진행을 하려고 고민하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시도를 했다는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배운점

이번에 산학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소했던 AWS에 어떤 서비스가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배웠다.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lambda와 serverless 개념부터 개념은 생소하지 않지만 AWS에선 처음이었던 rekognition, rds, sagemaker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또한 AWS같은 PaaS service를 사용 할 때 비용에 민감해야한다는 것을 배웠다. 처음 AWS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AWS는 자칫하면 본인이 원래 사용하려고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 환불은 잘해주는 편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을 때 과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사용자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으로 배운 것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직관적인 방법이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API gateway에서 test를 볼 때 HTTP method를 통해 parameter를 URL로 보내면 API gateway에서 답을 준다. 이 원리에 기초해서 처음부터 URL로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계속 AWS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Cocoa pod을 쓰는 방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다. 덕분에 다음부터 어떤 문제를 해결 할 때 원래 방식에서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기초에 기반해서 다른 해결방법을 찾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고 오히려 어떨 때는 더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